

삼성전자 광주공장 생산물량 일부 멕시코로 넘긴다

라인 축소 현실화...근무조 3개에서 2개조로 줄고 일감 감소 불가피 냉장고 등 가전제품 생산량 3분1 축소...출시 6년 이상 된 모델 이전 협력업체 위탁 물량 가져와 직접 생산...삼성 "라인 최신회 작업 시작"

삼성전자 광주공장이 생산 물량을 축소한다. 삼성은 광주공장 생산 물량을 해외로 넘기는 대신, 협력업체 일감을 가져와 직접 생산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설비 최신회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이지만 지역 협력업체들의 물량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삼성은 가전제품이나 집체 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15일 삼성전자 광주공장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2025년부터 광주공장 내 냉장고 생산물량 일부를 멕시코 공장으로 넘길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정확한 이전 물량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광주공장 전체 가전제품 생산량의 3분의 1 규모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존 생산 라인별로 투입된 인력도 3개조에서 2개조로 축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광주공장에서는 프리미엄급 제품을 생산해 국내와 미국에서 판매하는데 이들 제품들 중 출시된 지 6년이 경과한 제품들의 경우 멕시코로 이전해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들 제품군은 시장 경쟁력

이 떨어져 생산하더라도 이윤이 남지 않는 이른바 '한계 적자 모델'이라 국내보다 인건비가 싸고 물류비도 적게 드는 멕시코로 옮겨 생산하게 됐다는 게 삼성전자 측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해외 이전 물량으로 줄어든 자체 생산 물량의 경우 지역 11개 협력업체로 위탁해 생산 중인 제품을 가져와 직접 생산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협력업체들의 일감 감소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지역 협력업체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올해만 해도 삼성전자와 당초 맺은 계약 물량보다 적은 물량을 수주해 납품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직접 생산을 할 경우 수익성 악화도 뒤따를 수밖에 없어사다.

관련업체 대표 A씨는 "삼성전자에서 물량을 받아 생산하는 입장에서 제품이 안팔려 주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제품 소비 진작을 위한 노력을 해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다른 업체 관계자 B씨도 "올해 초부터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만약 물량이 줄어든다면 경영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다른 사업을 찾기 위해 눈을 돌려야하는 상황"이라며 "사출, 금형 등 타 업체에서도 페이스리프트 제품이나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면서 일감이 없다는 아우성이 들린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지역 경제 침체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광주공장의 경우 광주지역 총생산의 8.5% 가량을 담당하고 있는데 협력업체 경영악화까지 더한다면 지역 경제 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광주공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이

라고 설명했다. 특히 첨단 기술을 탑재한 제품을 개발 중에 있는 만큼 새로운 프리미엄급 모델을 출시할 경우 광주공장을 비롯한 지역 업체를 상향도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전자 광주공장 관계자는 "당장 다음달부터 냉장고 생산라인 최신회 작업을 시작하며, 내년에 도약 300억원을 투자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협력업체 물량 회수의 경우 광주공장 인력유지 문제도 있지만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산경쟁력이 낮은 업체 등의 물량을 가져오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당분간 직접 생산에 나서면서 경영에 차질을 빚는 협력업체들이 생길 수 있지만 향후 신제품이 출시되면 다시 수익을 얻게 되는 기업들이 생길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광주공장이 망가지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

허영만 화백 아트월

SNS 인증샷 이벤트

광주신세계가 여수 출신 한국 대표 만화가 허영만 화백의 작품이 전시된 아트월 SNS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진)

광주신세계는 오는 30일까지 본관 1층 신세계 갤러리 앞 광장에 마련된 아트월에서 허영만 화백의 작품과 함께 사진을 찍어 개인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샷을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선물을 증정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역 출신 작가들과 협업한 아트월 프로젝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하고 다채로운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동시에 지역 작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해시태그는 '#광주신세계', '#허영만화백아트월'을 게시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1일 개



인 메시지를 통해 발송될 예정이다. 여수 출신 허영만 화백은 '날아라 슈퍼보', '식객', '타짜', '각시탈' 등의 작품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광주신세계 아트월은 허 화백의 대표 작품들로 구성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소형 이모빌리티 자유특구' 참여 사업자 모집

전남도 31일까지 이메일 접수

전남도가 오는 31일까지 소형 (e)-모빌리티 산업 확산의 신호탄인 '전남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가할 특구 사업자를 모집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있고 향후 특구지역(영광 일원(47.7km²)) 사업장 이전이나 신설이 가능한 기업이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과 전남테크노파크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신청 기업은 선정평가 절차를 거쳐 특구 사업자로 지정되며, 특구 사업자가 될 경우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4륜형이륜차, 초소형전기차 등 4개 실증 사업 및 기술개발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전남도는 2019년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전용 도로주행 허용 등 산업 육성의 걸림돌인 6건의 규제를 해소하고, 이모빌리티 기업 9개 사와 1154억원의 투자유치를 하

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후보특구로 지정된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도 혁신기업과 함께 늘어놓는 사용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해소를 통해 캐즘 현상으로 침체를 겪는 이모빌리티산업의 확산과 성공적 규제자유특구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남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9월 중기부 후보특구로 선정됐다. 특구사업자 선정, 중기부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2025년 상반기 특구위원회에서 특구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소형용 전남도 전략산업육성사업은 "규제 해소를 통해 많은 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고, 사업화를 통해 이모빌리티 산업이 확대되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겠다"며 "전남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구인-구직 매칭 지원사업 신청 접수

참여 사업장·미취업 청년 모집

전남도가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미취업 청년의 구직을 돕기 위한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기업과 청년을 모집한다.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 시 1년간 급여를 일부 지원(월 92만원)하는 사업이다.

또 기업이 청년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유지 및 정규직 유지·전환 시 기업과 청년에 각 200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청년의 입사 초기 적응 지원을 위한 온보딩 교육 등을 제공한다. 지역 경제·산업 구조상 중소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정보 부족 및 인력수급 불일치에 따라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최근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전국 70만 명에 이르고, 6개월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이 55.7%(5만 619명)에 달하는 등 청년 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업 맞춤형 인재 채용 지원을 위해 올해 신규로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대

상 기업은 18일까지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다. 청년은 전남에 거주하는 2024년 기준 18~45세(1978년~2006년 출생) 미취업 청년이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기업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메일 injob2410@naver.com)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심사·평가를 거쳐 적격 기업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은 오는 28일부터 11월 15일(www.job.go.kr/)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절차는 참여 기업 선정 후 기업이 청년근로자 채용 공고를 하면 청년이 기업에 입사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후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기업-청년 간 최종 매칭을 통해 선정·지원한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인민국장은 "청년고용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지만 이번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해 일 경험을 쌓고 중소기업 역시 구인난을 해결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근속장려금 등 중소기업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이들이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9월 광주·전남 무역수지 수출·수입 모두 감소

9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한 47억6400만 달러, 수입은 3.9% 감소한 37억6700만 달러로, 9억97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15일 광주본부세관의 '2024년 9월 광주·전남 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누계 기준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0.2% 증가했고, 수입은 1.8% 늘어 107억1300만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보였다.

광주의 경우 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7.2% 감소한 10억8700만 달러, 수입은 14.4% 증가한 6억400만 달러를 보였다. 4억8300만 달러 무역수지 흑자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7.9%)·타이어(7.9%)가 증가하였고, 반도체(41.6%)·기계류(5.0%)·가전제품(30.6%)은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26.3%)·고무(49.6%)·가전제품(29.5%)·화학품(16.4%)이 증가했고, 기계류(49.5%)는 줄었다.

전남은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한 36억7700만 달러, 수입은 6.8% 떨어진 31억6300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5억1400만 달러 무역흑자를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철강제품(5.0%)·수송장비(16.5%)이 늘었고, 석유제품(16.2%)·화학품(12.2%)·기계류(72.7%)는 줄었다. 수입은 석유제품(31.2%)이 증가했고, 원유(6.5%)·철광(20.6%)·석탄(27.7%)·화학품(2.4%)은 감소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33.45 (+10.16)
↑ 코스닥	773.81 (+3.55)
↓ 금리(국고채 3년)	2.906 (-0.032)
↑ 환율(USD)	1360.60 (+4.70)

1000여명 몰리고 9수 합격자까지...GGM 일자리 인기

일반직 경쟁률 53대 1 달해

입사 46명 내주부터 업무 투입

전국 최초 상생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지역 청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산업기반이 약한 탓에 적절한 임금과 복지를 갖춘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광주에서 GGM은 취업준비생들의 선호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당장 지난달 진행된 하반기 공개채용에 1000명이 넘게 몰리며 최고 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이번 채용에는 '9수' 끝에 사원증을 목에 건 신입사원도 나왔다.

15일 GGM에 따르면 46명을 채용하는 올 하반기 공개채에 전체 직군에 1021명이 지원,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직 경쟁률이 53대 1로 가장

높았고, 기술직은 16.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46명의 합격자 중 현장직(생산본부 도장부)에 합격한 민승현(30) 매니저는 "7전8기를 넘어 9번 도전만에 GGM 신입사원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 매니저는 지난 2021년부터 진행된 10번의 GGM 공개·수시채용 중 한 차례를 제외한 9차례에 지원서를 냈다. 이번 도장부 채용 경쟁률은 16대 1로 공개채용을 거듭할 때마다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어 불안하기도 했지만 마침내 합격했다.

지역 상생인재를 뽑는 GGM의 취지에 맞게 민 매니저는 광주시민이다. 대학에서 전기과를 전공했고, 전공과는 다르지만 전기차와 로봇 등에 관심이 많아 완성차 기업 입사를 꿈꿨다고 한다.

민 매니저는 "자동차 기업에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컸다. 국내에 몇 없는 완성차 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어 일하고 싶다는 열망이 컸다"며 "도장부 채용이 없을때는 타 기업 근무 경험이 있는 조립, 물류 등에도 지원했었다"고 말했다.

민 매니저는 앞선 8차례 고배를 마시면서 좌절할 법도 했지만 GGM이 지역과 기업, 근로자가 상생하는 기업이라는 데 매력을 느꼈고, 발전 가능성이 큰 기업이라고 생각해 꾸준히 문을 두드렸다.

민 매니저는 "탈락 할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차츰 통과하는 전형이 늘어가면서 더욱 입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다"며 "이번에 그 꿈을 이루게 돼 행복하다"고 말했다.

민 매니저는 함께 입사한 신입사원들과 함께 이번 주 신입사원 교육을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GGM에서 일하게 된다. 민 매니저는 유럽 수출을 앞둔 캐스퍼 EV의 차량 도색과 관련한 업무에 투입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금호타이어, 타이어 디지털 트윈 시스템 구축·가동

빅데이터·AI로 최적 설계

금호타이어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에 기반한 타이어 디지털 트윈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15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타이어 디지털 트윈 기술은 기존의 제품개발 프로세스였던 실험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공간에서 개발 과정을 구현하고, 가상(Virtual)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술은 여러 버전의 타이어 제품 도면을 자동

으로 설계하고, 빅데이터와 AI로 최적 설계를 고른 뒤 차량 동역학에 대한 가상 평가를 통해 타이어 성능을 최종 검증한다.

타이어는 회전저항, 제동, 마모, 소음진동 등 주행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제품 컴파운드, 패턴, 구조 등 설계 인자들을 최적으로 디자인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디지털 트윈 기술로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혁신을 유도해 개발 기간 단축, 성능 향상, 개발 비용 절감 등을 꾀할 예정이다.

이러 성능 예측 시스템 개선, 차량 동역학 해석과 연계한 드라이빙 시뮬레이션 기술 도입 등으로 디지털 전환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김기운 VPD 센터장은 "금호타이어는 선진 개발 환경을 바탕으로 기술 집약적인 제품 개발에 힘쓰며 기술 경쟁력 확보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2021년 타이어 개발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을 선언한 뒤 센서를 적용한 스마트 타이어 등을 개발해왔다. /김민석 기자 mskim@

한은 광주전남본부 29일 '하반기 금융경제강좌'

박양우 비엔날레 대표이사 강좌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오는 29일 오후 3시 본부 1층 강당에서 '2024년 하반기 한국은행 금융경제강좌' 2회차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강의는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가 '비엔날레와 현대 미술'을 주제로, 광주 대표 문화

예술 행사인 광주비엔날레의 역사와 올해 비엔날레 행사를 소개한다.

올해 비엔날레 주요 전시 작품들을 중심으로 현대 미술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12월 1일까지 진행되는 '판소리, 모두의 울림'(Pansori, a soundscape of the 21st century)과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에 대해 설명

할 계획이다. 특히 '판소리, 모두의 울림'의 경우 최근 광주 출신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전시의 3개 섹션 소제목 '부딪침 소리', '겹침 소리', '저음 소리'를 작명해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많은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강의를 누구나 사전 신청없이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